

성 당 소 식

메타천 교구 예비신자 선발식 (The Rite of Election)에 다녀와서

지난 3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 메타천에 위치한 St. Francis Assisi 대성당에서 메타천 교구 예비신자 선발예식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 첫 주일에 교구 대성당에서 주교님의 집전으로 영세를 준비해온 예비교우들을 위한 선발예식 (The Rite of Election)을 가집니다.

본당 공동체의 대표와 대부모가 참석하여 예비신자가 영세를 받을 준비와 가톨릭공동체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확증하고, 예비자는 가톨릭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가톨릭 공동체에 입교하고자 하는 원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The Book of Elect에 서명하고, 교구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는 기쁜 날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2년 만에 가지는 선발예식이었는데, 메타천교구 여러 본당에서 90여명 되는 예비교우가 선발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참석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건진 대상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에디슨 성당에서는 작년 7월 11일 부터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 오신 예비교우 두 분 중 문세라 자매님께서 대모님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학교일정으로 참석을 못한 조재익 형제님은 본당에서 따로 선발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석로 이나시오 부제님께서 저희 본당 대표로서 예비교우 호명해 주셨고 요안나 선교부장님께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교님께서서는 그 동안 개인적인 희생을 하며 인내와 헌신, 꾸준한 수련으로 영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선발식에 참석하게 된 예비교우들을 격려하시며, 공동체 앞에서 Book of election에 사인을 하고, 곧 부활에 영세를 받게 됨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예비자분들은 부활 성야에 영세를 받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위해 사순 3, 4, 5 주일 미사 중 참회하고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다짐하는 수련식을 하고, 부활 성야 미사에서 영세를 받으십니다.

저희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되실 두 분의 형제,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실 기쁜 시간을 기다리며 영적인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 에디슨 성당 교육분과 / 선교분과



사진: 문세라 (예비교우), Bishop James F. Checchio, Natalie Ward (대모)

사순 제 2주일

2022년 3월 13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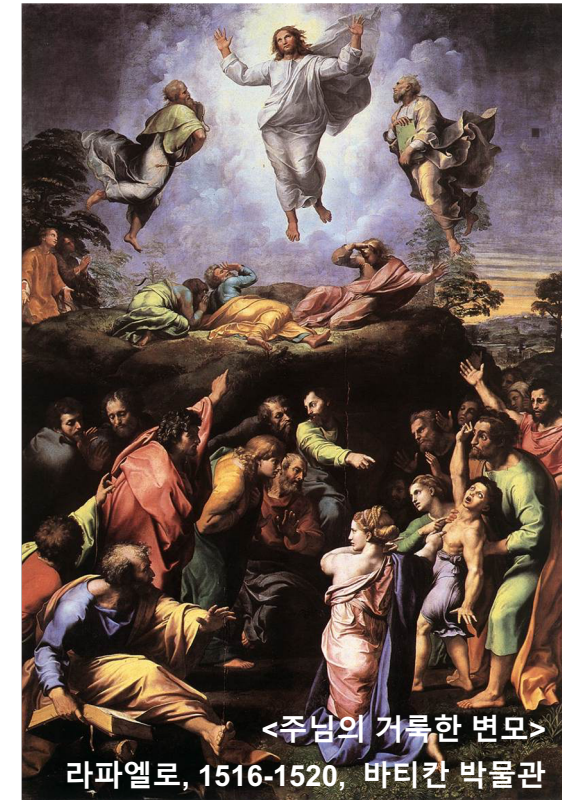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주님의 거룩한 변모>

라파엘로, 1516-1520, 바티칸 박물관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창세기 15,5-12.17-8

화답송 시편27(26),1.7-8.9.13-14 (㉟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3,17-4,1

복음환호송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루카 9,28ㄴ-36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3/14/22	다니엘 예언서 9,4ㄴ-10	루카 6,36-38
화요일 03/15/22	이사야서 1,10.16-20	마태오 23,1-12
수요일 03/16/22	예레미야서 18,18-20	마태오 20,17-28
목요일 03/17/22	예레미야서 17,5-10	루카 16,19-31
금요일 03/18/22	창세기 37,3-4.12-13ㄷ.17ㄹ-28	마태오 21,33-46
토요일 03/19/22	사무엘기 하권 7,4-16	
	사도 바오로 로마서 4,13-22	마태오 1,16-24ㄱ
일요일 03/20/22	탈출기 3,1-8ㄱㄷ.13-15	루카 13,1-9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0,1-12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최경자(마리아)	- 최 헬레나
• 이규호	- 이규순(미카엘)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정영태(곰벨또)	- 가족
• 한창수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 오경선(원선시오)	- 이대우(베드로) 가족
• 오용덕(헨리코)	- 박재영(요아킴) 가족
• 하건철(안토니오)	- 박재영(요아킴) 가족
• 이석중(스테파노)	- 박재영(요아킴) 가족
• 심 루시아	- 가족
• 한서윤(올리비아)	- 가족
• 오재현(미카엘)	- 유스그룹 김동근(사도요한)
• 한서윤(올리비아)	- 가족
• 변상원(제임스)와 가족	- 변태용(요셉)
• 변상민(에드워드)와 가족	- 변태용(요셉)

주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156 명	합계 : \$1,503
2차헌금 (우크라이나 지원)	합계 : \$1,731

교무금 납부 안내

최영욱(3)	민규란(1-6)	채희백(3-4)
양영길(3-4)	오경선(3-4)	이재서(3-4)
김인자(1-6)	오현주(3-4)	최율리오(1-3)
한상철(1-2)	백상현(3)	합계: \$3,12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이석중(스테파노)	

공지사항

- # 2차헌금**
- 3월 13일: 유틸리티
 - 4월 3일: 부활절 꽃 장식

사순시기동안 미사 시작 30분 전(11시) 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및 특강

- 3/13 사순 2주일 프린스턴 성당 김기현 (모이세) 신부님
- 4/3 사순 5주일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님

사순 판공성사 일정

- 3월 24일 (목) 저녁 6시 30분 참회예절, 7시 판공성사
- 3/20, 3/27 미사 후 30분 간 판공성사
- 판공성사표 작성 후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순시기 구역 모임 및 판공 성사 일정

- 3월 19일(토) 오후 2시 노스에디슨, 4시 피스브릿지
- 3월 20일(일) 미사 후 올드브릿지, 노스브런스워
- 3월 26일(토) 오후2시 메타천, 6시 사우스브런스워
- 4월 2일(토) 오후 5시 럽거스
- 4월 3일(일) 미사 후 썸머셋
- 4월 10일(일) 미사 후 에디슨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3월 13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7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 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예비 신자 수련식

- 3/20, 3/27, 4/3 3주간 예비신자 수련식이 주일미사 중 거행됩니다.
- 이번 부활 성야에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 문세라, 조재익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은 \$35,000 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2/27까지 약정금액은\$ 8,489 39 (목표금액의 24.3%, 39가정 참여)입니다.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1독서 < 창세기 > 15,5-12.17-18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삼 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 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 3,17—4,1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 복음 > 9,28ㄴ-36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